

## 중국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I.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금융시스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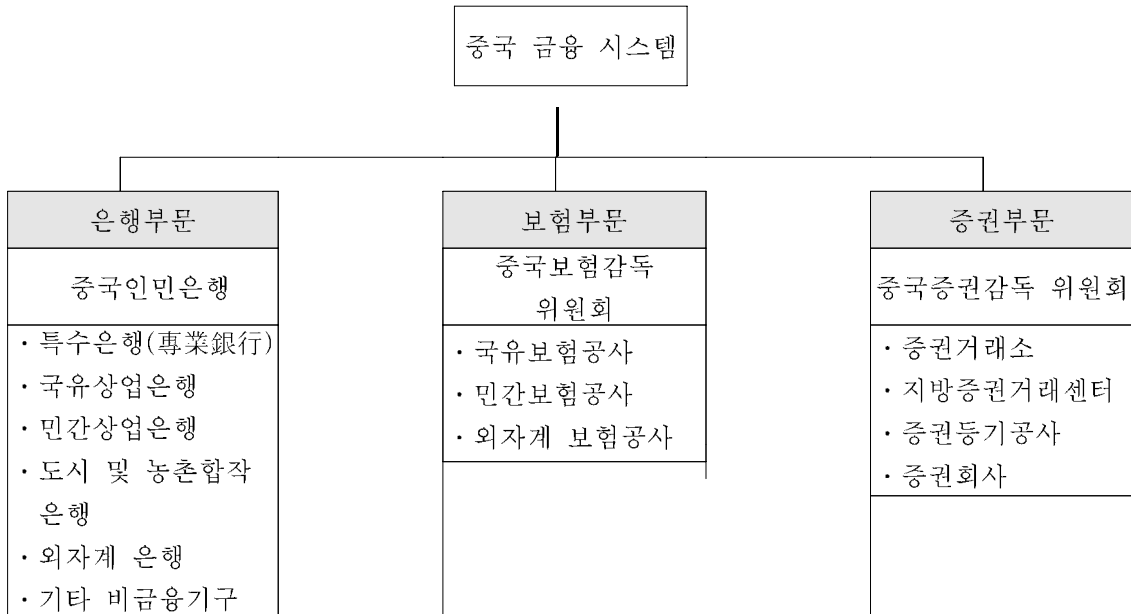
#### 1. 개혁·개방 이전의 금융시스템

- 개혁·개방 이전에는 은행과 보험업무는 유일한 금융기관인 중국인민은행의 관리·감독하에 있었음. 은행 업무도 예금, 대출과 송금업무가 전부였고, 어음과 수표의 발행 및 교환제도는 없었음. 당시 은행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부속물로서 정부 금융계획을 실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경영의 독립성은 불가능하였음.
- 따라서, 계획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한 금융시스템하에서는 현재와 같은 불량채권이나 비은행기구의 경영파탄 같은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

#### 2. 개혁·개방 이후의 금융시스템

- 개혁·개방 이후 최근의 금융시스템, 즉 은행, 증권, 보험의 분업체제가 '98년 구축되어 독립된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음.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간단히 도표로 보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음.
- 개혁·개방이전의 중국인민은행 단일 금융체제에서 이중 금융체제로 전환 시작('79~'93).
  - '79년부터 '84년까지 기간동안 차례로 4개의 전문 국유은행(중국농업은행: 농촌금융 전담, 중국인민건설은행: 중장기 대출전담, 중국은행: 외화전담, 중국공상은행: 도시 상공업에 종사하는 기업 및 가계에 대한 여수신 전담)이 설립되면서 중국인민은행의 상업은행기능이 이들 은행으로 이관되었고,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국무원에 편입됨.

중국 금융시스템의 현황



- '85년 이후 경제발전의 필요에 부응하여 전국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업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구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국유 전문은행을 다양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경쟁체제 도입.
- 중국 금융기관체제가 가일층 정비되고 전문화됨('94~ 현재)
  - '94년에 국유 전담은행이 수행해 오던 일부 정책기능을 3개 특수은행(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설립을 통해 전문화함으로써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확실하게 분리.
  - '95년 '상업은행법'이 통과됨으로써 과거 4대 국유 전담은행이 모두 상업은행인 국유상업은행으로 전환.
- 따라서 현재 중국의 은행체제는 중국인민은행의 감독하에 국유상업은행, 특수은행, 민간상업은행과 비은행기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3. 은행산업의 특징

- 과거 계획경제 체제의 영향에 따른 정경유착으로 은행의 자율경영과 책임 경영이 정착되기 어려움. 이는 개혁·개방 후에도 지방정부의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기능했던 역할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
- 국유전담은행 중심으로 은행산업이 발전하였고, 국유전담은행이 '94년 상업은행화하였으나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함.
  - '98년 말 현재 국유상업은행의 자산 총액은 9조 5,000억 위안(1조 1,473억 달러)으로 은행부문 자산 총액의 62.1%를 차지하고 있음.
  - 은행업무와 관련한 경영기구는 적는데 반해, 관리기구는 많으며, 인원이 과다하여 효율성이 저조함.
  - ⇒ 최근의 중국 국유상업은행 인원과 점포수는 각각 1,691천 명과 153천 개이며, ROE는 1.75임(Euromoney지의 '00. 5월 호).

#### 국가별 상업은행 지점설치 현황

	은행 수	지점 수	은행당 지점수	은행당 대상고객 수
미국	14,451	39,285	3	15,676
캐나다	11	7,414	674	2,221,636
영국	35	13,965	399	1,601,914
일본	86	13,334	155	137,825
중국	4	155,200	3,880	421,833

주) 선진국 자료는 '82년 말 현재, 중국은 '95년 말 현재임  
 자료: '跨世紀中國金融業', 광동경제출판사, '00.1. p.105

-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입규제와 영업제한 실시.
  - 외국계 은행의 중국 진출은 진출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하에 일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진출을 허용하여 왔으며, 진출 지역도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와 일부 도시 등에 한정하였음.
  - 외국계 은행은 '96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외화 영업만을 허용되었으나, 그 이후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장쑤(江蘇), 저장(浙江) 등 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위안화 영업 허용.

## II. 최근 금융시스템 개혁 추진 방향

- 중국인민은행은 '93년 12월 중국 국무원의 '금융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關於金融體制改革的決定)'에 근거하여 '94년 중앙은행으로의 변신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이어 '95년에 '중국인민은행법(中華人民共和國人民銀行法)의 제정으로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
- 이는 중국이 '93년부터 과거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은행부문도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도록 전환한 것임.
- 따라서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수립·시행, 통화정책 수단의 활용, 통화관리 방법 등의 면에서 점차 국제관례에 맞게 변화되고 있음.
- '98년 말 중국인민은행은 과거 省별로 설치되어 있던 중앙은행 지역본부를, 중국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지역본부를 설치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지방정부의 개입 차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화정책 추진 모색.
  - 통화정책은 중앙은행 본점에서, 정책 수행과 관리감독 업무는 지점에서 수행.
- 중국인민은행의 관리체제개혁의 진전에 따라 국유상업은행의 관리체제도 본격적으로 개혁되기 시작하였음.
  - '99년 내 완료를 목표로 각 국유상업은행의 지역본부와 省의 중요지점을 통합함과 동시에 말단조직의 통폐합 추진.
  - 중국인민은행이 각 국유상업은행에 제한하였던 대출한도를 '99년 1월 폐지하고, 자산·부채비율과 리스크 관리를 기초로 한 새로운 리스크 관리체제로 전환 요구.
  - 기업에 대한 여신확대를 위해 지불준비금 인하(13%에서 8%).
  - '98년 8월에 국유상업은행의 자본금 증액을 통한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700억 위안(326억 달러)의 국채 발행.
  - '99년 2월 중국인민은행은 채권에 대한 5단계 기준(정상, 주의, 불량, 의문, 손실)을 마련하고, '불량'에서 '손실'의 3단계를 '불량채권'으로 분류함.
    - ⇒ 불량채권으로 분류된 자산은 '99년 1월부터 각 국유상업은행을 전담할

- 금융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채무주식화 등의 방식으로 부실채권 처리.
- 비은행기구에 대한 개편안이 '98년 12월에 발표됨으로써,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와 光大국제신탁투자공사를 존속시키는 등, 원칙적으로 전국의 각 省과 직할시에 1개사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쇄 또는 통폐합하여 현재 239개로 축소하였음. 이에 따라 광동국제신탁투자공사(GITIC)와 중국투자은행 등도 폐쇄 또는 재편되었음.
- 중앙은행이 그 동안 취해온 조치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 이자율 조정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
    - ⇒ '96년 이래로 7차례에 걸쳐 예대 이자율을 인하하여 기업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및 개인의 소비촉진 도모.
  - 적극적인 통화 조절수단 활용.
    - ⇒ '98년 1월부터 그 동안 실시해왔던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비율과 위험을 중시하는 '계획지도, 예대 균형 유지'의 간접 방식으로 관리 전환.
  - 국유상업은행의 경영체제에 부합하는 중앙은행의 감독·관리 체제 구축
    - ⇒ 중앙은행은 본점(總行), 지역본부(分行), 중요지점(中心支行), 지점(支行)의 4단계 관리·감독체제를 두고 있음. 이는 상업은행들이 본점, 일급 지점 또는 직속 지점(一級分行 또는 直屬分行), 이급 지점(二級分行), 지점(支行)의 체제에 대응한 것임. 이렇게 서로 대응된 조직체제를 둠으로써 관리·감독 기능 강화 도모.
  - 모든 상업은행에 처음으로 監査會를 두어 내부 관리 강화.

### III. 중국 금융시스템의 문제점

-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도록 제도 정비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자금 수요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점도 노정되고 있음.

## 1. 중앙은행의 기능과 제도상의 문제점

### 가. 중앙은행 조직과 운용상의 문제점

#### － 중앙은행의 독립성 여전히 미흡.

-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인사, 신용과 정책 수립 및 집행의 독립 세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그 중에서도 통화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독립성이 크게 취약함. 중국 중앙은행은 모든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시행 가능.
- 일부 기관이나 개인(고위 공무원)들이 중앙은행의 직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간여가 끊이지 않음.

#### － 권역별 관리감독 체계의 미정착.

- 전국을 9개의 권역별 지역본부의 관할에 둬에 따라 관할지역과 조직의 확대에 市나 縣 등의 지역에 소재한 중앙은행 지점에 대한 업무지도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음.
- 권역별 지역본부 소재지역 이외의 지방 행정 중심도시인 省都에 중앙은행의 금융관리감독 사무소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省都에 설치된 ‘중요지점’과의 기구 중복 및 직무 구분이 모호해져 오히려 관리·감독에 혼선 야기.
- 또한, 전국을 광역 관리로 전환하였으나 ‘지점’은 여전히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지점’을 지방정부의 부속기구처럼 간주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본부의 관리·감독 기능은 강화되었지만 각 市 등에 소재한 ‘중요지점’의 내부 조직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하부 조직으로 갈수록 감독 기능 미약.

#### － 중앙은행 자체적인 내부 관리 시스템 부재.

- 중앙은행이 금융 감독 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감독기구의 부패 가능성과 감독 행위의 비규범화 초래 가능성.

## 나. 통화정책 시행상의 문제점

- 통화공급 루트의 경색.
  -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팽창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업은행들은 건전 경영을 위해 자금대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설비 투자 부진.
  -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에 따른 외화 선호로 상업은행을 통해 공급 되는 본원통화가 감소.
- 통화정책 효과 미흡.
  - 7차레에 걸쳐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효과가 미흡. 이는 기초 이자율을 산정하는데 자금시장의 수급을 반영하는 참고지표가 없기 때문.
  - 중앙은행은 다소 느슨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데 반해, 은행들은 신중한 여신정책으로 상호 운용상 모순점 노정.
- 중앙은행을 국유상업은행들과 같은 선상에서 동시에 개혁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과 미흡.
- 중앙은행에 부여된 비교적 많은 행정관리 기능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통화정책 수행에 제약.

## 다. 관리·감독상의 직면하는 모순

- 관리·감독은 ‘분업 경영과 분업 관리’에 의거 집중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각 감독기관 나름대로 감독체계를 갖추으로써 관리·감독 업무시 상호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이는 감독기관인 중국인민은행,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임.
  - 보험감독위원회의 설치로 중앙은행이 보험부문을 감독할 수 없게 되는데 다 지방에 보험 관련 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보험감독 업무는 진공 상태임.
- 금융기관 소유자(국가, 주주)의 관리·감독 소홀이 감독기관인 중국인민은행의 관리·감독 강화 초래.

- 중앙은행 지방 하부조직의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 권한이 본점으로 이송됨에 따라 지방 조직은 발생한 문제를 조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징후를 발견하고서도 단계별로 본점에 보고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실패하는 리스크 관리상의 허점을 노정.
- 금융리스크를 예방하고 해소 임무를 맡고 있는 중앙은행이 은행들에 대해 불량채권을 축소 내지는 정상채권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외에는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국유상업은행은 1994년부터 과거의 계획경제 체제의 부담, 이를 떼면 불량채권, 낙후된 경영관리, 과도한 고용인력 보유 등에서 벗어나고자 개혁을 하고 있는 반면, 은행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개혁이 순조롭지 않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근의 경기부진으로 중앙정부가 하달한 조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지방정부는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 기업이 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에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

#### 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금융기관 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로 금융기관 자체 관리상의 한계가 있는데 반해, 중앙은행의 관리·감독 기능은 훨씬 강화되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실시함.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큰 괴리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움.
- 또한 중앙은행의 조직체계에서 오는 관리·감독 분업체제의 불합리.
  - 중앙은행의 관리·감독이 금융기관 각 영업지점까지 미치지 못함.
  - 국유와 민간 상업은행 본점과 각지방 省都, 계획단열도시(大連, 靑島 등과 같이 성도에 버금가는 권한을 갖는 도시)에 소재한 중요지점에 대한 중앙은행 본점, 지역본부, 중요지점간에 분업체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서로 책임전가 경향 빈번.
- 관리·감독 수단의 낙후로 변모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함.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관리·감독함에 따라 예방적이기보다는 사후 약방문격인 관리·감독 수준에 그침.



## 2. 국유상업은행 등이 안고 있는 문제

- 오랜 기간 동안의 정부 정책 기능의 수행과 관리 소홀로 발생된 국유상업은행의 불량채권을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
  -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불량채권이 대출총액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앞으로 3년 후에 이 비율을 20% 수준까지 낮출 예정.
  - 이러한 불량채권은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국유기업 대출금의 불량화에 기인된 것임. 이는 ① 지방정부의 은행에 대한 국유기업 대출압력, ② 국유기업의 채무변제의식 결여 등에 따라 발생된 것임.
  - 따라서 중국정부가 이러한 불량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금융시스템 개혁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국유상업은행의 자율경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 내부 리스크 관리제도 등 정비 미흡.
  -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과 민간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국유상업은행에 기업대출을 강요할 수도 있음. 이렇게 될 경우 새로운 부실채권을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 초래.
  
- 비은행기구의 부실경영 문제.
  -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의 신탁업무 추진 필요성으로 '79년에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가 설립되었고, 그 후 각지에 신탁투자공사가 설립되어, '88년에는 최고 745개에 달함.
  - 신탁투자공사는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였으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규제를 피해 은행과 지방정부가 신탁투자공사를 설립하여 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역기능의 역할도 하였음.
  - 신탁투자공사의 문제점으로는 ① 고금리의 여수신으로 금융질서를 혼란시키고, ② 투융자의 불량채권화 비율이 높고, ③ 단기자금의 투기적 내지는 중장기 운용으로 인한 심각한 유동성 리스크에 빠져 있다는 점 등임.
  - 따라서, 신탁투자공사들 중에 과다채무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관이 많아 향후 중국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금융 시스템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됨.
    - ⇒ 중국정부는 '98년12월에 비은행기구 개편안을 마련하여, 비은행기구로

전국을 커버하는 CITIC, 광대국제신탁투자공사를 존속시키는 한편, 원칙적으로는 전국의 각 기관·직할시의 한 회사씩만 남겨 놓고, 다른 모든 것은 폐쇄, 통합하여 239개사로 축소하였음.

## IV. 중국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향후 경제 전망

### 1. 금융 시스템 개혁의 성과

- 중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① 중국인민은행의 관리체제 개편, ② 국유상업은행의 관리체제 개혁, ③ 은행, 증권, 보험의 분업 관리체제로 개편, ④ 불량 대출채권의 처리, ⑤ 비은행 기구의 정리와 재편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음.
  - 중국인민은행의 관리체제개혁을 보면,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권위 강화와 동시에,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음. 이로써 중국인민은행은 관할지역의 금융활동, 업무, 인사 등의 모든 면에서 지방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금융 관리·감독능력을 높여서 거시경제 조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 국유상업은행의 관리체제 개혁에 따른 국유상업은행의 조직 개혁과 대출 한도의 철폐 등으로 각 상업은행은 자율적인 책임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는 국유상업은행의 진정한 의미의 상업은행화 추진, 금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불량채권 축소의 기반 조성.
  - 법정준비금의 인하로 각 상업은행의 수익 악화를 개선하는데 기여. 또한, 특별 국채(2,700억 원) 발행을 통한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자본금 증자로 국제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계기 조성.
  - 은행·증권·보험의 분업 관리체제로 체계적으로 금융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일익.
  - 불량채권 처리에 대해서 보면, 5단계로 대출채권을 분류함으로써 은행 대출채권의 리스크 정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재분류되었으며, 이는 각 금융기관에 대해 중국인민은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또한,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이 불량채권을 처리하는데 일익.
  - 비은행기구의 구조조정으로 금융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

- 이렇게 볼때, 금융시스템개혁의 성과는 금융 리스크의 예방,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음.

## 2. 금융 시스템 개혁의 과제

- 그러나 중국의 금융 시스템 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중국인민은행의 조직과 관리체제 개혁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권역별 관할에 따라 그 기능이 제대로 정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비록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증자와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을 통한 불량채권의 축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국유상업은행들은 BIS의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대출자산의 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자기자본비율 달성은 더욱 어렵게 되고, 중국인민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자산·부채비율에 의한 관리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있음. 더욱이 팽창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불량채권 처리에 거액의 재정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어렵고, 급증하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도 재정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량채권 처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시스템의 개혁으로 금융질서가 정비되고 있지만, 정경유착,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개입에 의한 국유상업은행의 자율경영을 침해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음.
  - 과도한 인력으로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4개 국유상업은행의 인력을 보면,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이 각각 57만 명, 중국건설은행과 중국은행은 36만 명과 20만 명이나 됨. 반면 최근에 설립된 민간상업은행이나 외국계 은행의 경우 소수 정예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전체 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상업은행의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함.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공상은행 규모의 자산을 가진 은행 인원이 3만 명을 초과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과도한 인력 보유를 짐작할 수 있음. 그러나 문제는 감원이 쉽지 않다는 점임.

### 3. 경제 전망

- 중국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앞날은 우선 국유기업 개혁, 정경유착 등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국유기업의 개혁을 보면, 지난 3년간 기업의 인력감축, 사회부담(주택 공급, 의료비와 양로비 지급 및 탁아소, 학교 등의 운영) 축소 및 자산관리 공사에 대한 부실채권의 부분적 양도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유기업의 회생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도 독립된 법인으로 효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의 불량채권 중에서 어느 정도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악성 불량채권은 은행에 고스란히 남게 됨.
- 또한,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상급 정부가 승인한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전체의 경제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의 활성화는 재원조달이 필수적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정부는 국유상업은행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지방정부가 은행에 압력행사를 할 개연성이 높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울 것이며, 이는 다시 부실채권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조성하게 됨.
- 최근 은행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의 중시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로 은행의 기업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중국경제는 중앙정부의 팽창 재정정책에 의한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음. 즉, 기업의 설비투자, 개인소비 등이 증가되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여실히 보여줌.
-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국유상업은행의 주요 고객인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국유상업은행 및 전체 중국 금융기관의 효율을 제고하기는 어려울 것임. 더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의 은행들은 외국 유수의 상업은행들과 경쟁하게 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어려울 것임.

- 다만, 중국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10년내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100개의 대기업(그룹)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 추진 내용을 보면,
  - 사업장 폐쇄와 청산: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이나 산업으로는 ① 낮은 품질, 과도한 자원 낭비, 많은 오염배출, 안전히 불비한 생산시설의 소규모 탄광, 정유 공장, 제련 공장, 시멘트 공장, 화학비료 공장 등임, ② 생산시설의 중복 건설로 과잉설비 보유, 자본잠식, 흑자전환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을 파산시키게 되는데 여기에는 대기업도 포함되며 주로 방직·석탄·비철금속·제철·군수공업 등임.
  - 규모 확대와 경쟁력 제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분야는 철강·석유화학·자동차·정보통신·가전 등으로 이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
  - 전문화: 이는 중소기업을 특정 분야에 특화하여 대기업과 분업생산 체제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중국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경제성장 저조 등의 부정적인 점을 부각시킬 수 있지만, 향후 몇 년간의 구조조정과 과거 유산인 기업의 사회복지 부담 축소 등의 기업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은행의 책임경영이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와 같은 여건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향후 수년간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팽창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기업과 금융시스템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5년 동안 7% 안팎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金周永】